

영암

Young-Ahm Presbyterian Church



2020 / No.136

예수님

볼 수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만질 수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만질 수 있을까?

신기하게도 나는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이지

내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지
난 언제나
예수님을 믿고 기도 해야지



초등1부 송태희



02	성시	예수님 · 초등1부 송태희
04	말씀의 샘물	새해, 말씀 많이 나누세요!
06	임옥목사님 20주기 특집	어른의 자취 · 이철웅 목사
08		열정과 사랑이 교회 곳곳에 · 이순길 장로
09	부흥 사경회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 · 이성례 집사
10	65주년 화보	새해, 말씀 많이 나누세요!
14	아기학교소감문	사랑과 배려가 가득한 아기학교 · 이은혜 사모
16	예담 94기	예담동산을 다녀와서 · 유일균 성도
18	부모교육	부모의 기쁨보다 · 홍선기 집사
20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 · 김미숙 집사
21	비전스쿨	2019 가을학기 초등2부 비전스쿨 소감문
22	일대일 제자양육	아버지 되어 주신 하나님 · 김경화 성도
24	문화교실	여러분, 영암 골프 문화교실로 오세요! · 기노창 안수집사
26	찬양한마당	추수감사절 찬양한마당
28	전도학교	영암전도학교 교육을 마치며 · 이성달 집사
30	신임교역자 소개	함께 살아가고, 살아내고 싶다! · 최석빈 목사
32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 이승현 전도사
33		가족같은 공동체 영암교회 · 김승철 전도사
34	영화칼럼	최고의 기독교 애니메이션을 만나라 · 강진구 안수집사
36	간증문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뵙니다. · 오지훈 청년
38	자유기고	전도의 소중함 · 김미숙 집사
39	사업보고	2019년 대림절 밀알헌금
40	새가족 소개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42	영암소식	



새해, 말씀 많이 나누세요!(엡4:3,15)



유상진 담임목사

또 다시 한해가 저물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는 순우리말입니다. 지구가 해를 한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365.25일이라고 합니다. 물리적인 시간의 변화로 묵은해가 가고 새해가 옵니다. 하지만 새해가 왔기에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새해를 맞는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날 만드신 것은 ‘빛’이었습니다. 혼돈과 흑암속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새해가 밝았다’는 말속에 ‘해’의 의미는 ‘한해’를 뜻하기도 하지만, 해가 뿜어내는 ‘빛’의 의미도 담겨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은 본래 불안한 존재입니다. 죄라는 어둠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새롭게하셔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새해, 우리는 지금껏 한번도 가지 않은 새길을 내딛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아쉬움과 후회가 우리를 움츠리게합니다. 그래서 설렘도 있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어두운 밤길을 가듯 우리의 걸음은 조심스럽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시119편 105절). 인생은 내일 일을 모르기에 어렵고 불안합니다. 그러기에 캄캄한 인생길에 실족하지 않으려면, 등불이요 빛이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합니다.

새해 본 교단의 표어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이며 교회 표어는 ‘하나되어 자라가는 교회’입니다. 이 둘의 공통분모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빛이 될 때 교회와 성도가 새로워지고 성숙하게 됩니다.

구약시대 성경말씀은 개인이 읽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경청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로 새로워지려면 개별화된 성경읽기와 묵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동체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는 초대 교회의 전통을 계승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묵상을 한다 해도, 묵상하고 있는 주체인 ‘나’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묵상 나눔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함께 모여 받은 말씀을 나눌 때 비로소 ‘나’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공동

체는 마치 거울 같습니다. 거울이 없으면 나의 모습을 알 수 없듯, 공동체의 나눔을 통해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80년대 이후 말씀묵상훈련(QT훈련)을 꾸준히 확산시켰습니다. 성도 개인이 일상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공동체에서의 말씀 나눔훈련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묵상하되 철저히 개인의 묵상으로만 머물고 있는 현실입니다.

로고스서원의 김기현목사님은 개인묵상의 위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묵상하고 혼자 해석하고 적용하다보면, 오히려 고집만 강해지고 자기의 해석을 맹신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위험을 극복할 대안이 공동체에서의 말씀 나눔입니다. 묵상한 말씀을 공동체에서 함께 나눌 때 비로소 나의 한계를 알게되고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공동체에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얻는 유익입니다.

교회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소그룹으로 모여 말씀으로 삶을 나누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지는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또 다시 새해를 맞이합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기 위해, 하나되어 자라가기 위해 모이기를 힘씁시다. 성경을 바르게 묵상하고 함께 모여 받은 말씀을 나눌 때, 성경대로 살아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구역 모임으로, 주일 소그룹으로 혹은 다락방 모임으로 함께 모여 말씀으로 삶을 나누는 일에 참여해봅시다. 그러려면 관심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흩어지면 말씀을 묵상하고, 모이면 말씀을 나누는 소그룹 모임에 성도 여러분의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요,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소그룹에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새해, 말씀 많이 나누세요! **Y**

어른의 자취



이철웅 목사

사전적으로 어른은 나이나 지위, 혹은 항렬이 높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른이 필요한 진짜 이유는 인간의 삶이 규칙 혹은 정보의 습득만으로는 살아낼 수 없고 거기에 어른들만이 전수해 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는 그저 휘이 지나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걸음걸음 음미하며 그것이 전하는 것들을 정신과 언사에 잘 배어낸 사람만이 몸소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입니다.

1999년 10월 20일 소석 임옥 목사님이 우리 곁을 떠나가시고 20년이 흘렀습니다. 올해 우리교회는 이 날을 기념하여 추도예식과 기념학술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중요하고 무거운 모임을 준비하며 저로서는 무척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나는 의미들이 저의 마음에 높은 의미와 깊은 감동으로 새겨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늘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늘 대화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항상 그 분과의 교제에서 그것을 구해야 하는데

자기 욕망의 뜻만 이루려고 구하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생긴대요!

- 1995년 9월 3일 설교 "죄를 이기는 길"(약41-10)

추도예식 중 사용할 영상을 만들기 위해 목사님의 설교를 한편 한편 들어보게 되었는데, 그 때 제 마음에 부딪쳐 오는 것들이 있었고, 그것은 점점 더 깊고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들을 무릎 위에 앉혀놓고 전하는 이야기는 그저 또 하나의 지식이 아닙니다. 젊은이들은 선호하는 정보가 있고 그것만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강하지만, 어른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양면성을 두루 꿰뚫고 있으며, (진부하게 느껴지던 것이) 실은 삶의 정수인지 드러내는 그런 류의 것이지요. 목사님의 설교를 묵취하며 제 마음에 일어난 것이 바로 이런 류의 일이었습니다. 익숙히 알고 있던 것들이 어른의 음성을 통해 제 마음에 전혀 새롭게 다가오고 깊은 울림으로 공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추도예식은 생전 임옥 목사님과 가까이에서 함께 하신 분들이 순서를 맡으셨습니다. 소석기념사업회 총무이신 김충렬목사님은 우리교회에서 임옥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사역하신 분으로 어느덧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마무리 하시고 은퇴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기도와 성경봉독은 목사님과 시무제직으로 열심히 섬기셨던 윤석봉장로님과 나광휘권사님께서 맡으셨습니다. 긴 시간 힘차게 말씀을 전하신 림인식 목사님은 임옥목사님의 천국환송예식 시 추도사를 맡으셨던 분으로 우리에게 임옥목사님에 대한 추억과 더불어 목사님의 정신을 다시금 일깨워주셨습니다. 박정수장로님은 임옥목사님의 약력을 단순하게 낭독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이야기를 함께 전하셨습니다. 이순길장로님과 함준호목사님은 목사님에 대한 그리움이 배

어나는 서신으로 추모사를, 유상진 담임목사님과 길 학철장로님은 자리를 더욱 의미있게 빛내주신 내빈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고, 마지막으로 축도는 소석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서 지난 20년 임옥목사님을 기리는 자리를 한결같이 지키신 손인웅목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임옥 목사님 20주기를 맞이하여 기념 논문집을 출간하게 된 것은 단지 목사님에 대한 회고를 넘어 작금의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가 가야 할 길이 임옥 목사님의 목회 정신에 담겨 있기에, 미래를 여는 길이요 열쇠로서 되새김 하기 위한 뜻깊은 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유상진목사, 소석 임옥 목사 20주기 기념 논문집
『큰 울림이 있는 작은 돌』 편집 후기 중

금번 20주기에는 추도예식 뿐만 아니라 기념 논문집의 발간과 학술세미나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논문집은 임옥 목사님이 평생 강조하셨던 ‘성경’, ‘교회’, ‘목회’를 범주로 하여 한편으로 목사님의 이 정신을 잘 이해하고, 다른 한편으로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갖는 의미를 해석한 아홉 분의 신학자들의 논문으로 엮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 2편의 논문이 추도예식 2부 학술세미나 중 발표되었습니다. 사실 일반 교우들이 신학 논문을 다루는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은 보기 드문 광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자질로서 지정의를 두루 계발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면, 금번 학술세미나는 목회자로서 임옥목사님의 평생의 소신과 바람이 무엇이었는지를 드러내고, 또 귀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수되는 의미있는 시

간이었습니다. 또한 발간된 기념논문집 천 권은 장로회신학대학에서 목회자 수련을 받고 있는 신학생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목회자의 최우위성을 지닌 직무는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일과 하나님의 양들을 진리로 먹여서 치는 일이며, 또한 말씀이 성육신 되신 예수를 말씀으로 가르쳐 증거하는 일이라고 하겠다.

—『성경·교회·목회소석 임옥 목사 성역반세기 기념문집
437-438 (20주기 기념 논문집, 366 재인용)』

임옥목사님의 20주기 행사를 모두 치르고 난 후 이 일이 제 안에 남긴 여운을 음미하며 주어진 삶을 충만하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러한 삶이 남기는 자취는 또 어떠한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금의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나아가야 할 길을 내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른의 자취를 따르며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Y**



열정과 사랑이 교회 곳곳에



이순길 장로

임옥 목사님은 품성이 온화하며 행동으로 본을 보이신 충성스러운 지도자였다. 언제나 많은 영혼의 길잡이셨으며 미래의 희망인 젊은이들에 대한 복음 선교에 지대한 열정을 쏟으셨다. 성경학자요 명설교가였고 가슴에 꿰어 넘치는 애국

애족의 혼이 있었고 통일의 염원이 있었다 (중략)

이 내용은 의정부 경민동산에 세워진 임옥 목사님 묘비문의 일부분입니다. 목사님 생전에 함께 하지 않았던 분이라도 이 묘비문만으로도 목사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영암교회 본관 머릿돌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본관을 신축할 때 임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며 앞장서서 일하셨고 특별히 본당 구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던 모습을 추억하며 우리 본당의 아름다운 구조물을 다시 소개하고자합니다.

본관 신축은 1977년 6월 20일에 착공하여 2년 뒤 1979년 11월 11일, 교회 창립 25주년이 되는 날 헌당식을 가졌습니다. 이 본당 안에는 목사님의 사상과 철학, 신앙심과 해박한 성경지식이 차고 넘칩니다. 지금도 매일 새벽기도 시간에 색유리의 조명을 받으며 앉아 있노라면 온갖 정성을 다해 예배당을 세우신 임목사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 합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십자가가 안 걸려있네'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강대상 중앙의 색유리창은 십자가가 있을 뿐 아니라 사도들의 신앙고백을 상징화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과 은혜가 성도들에게 임하심을 나타

냈습니다.

강대상을 향하여 양쪽 벽면 제일 윗쪽에는 신구약 성경을 열여섯 주제로 나누어 색유리창을 달았고 -왼쪽: 천지창조부터 베들레헴까지, 오른쪽: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재림까지- 그 아래에는 정관모 장로님의 작품인데, 부조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하반신만 8장면으로 나타냈습니다. 사형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넘어져 십자가에 깔리시고- 어머니를 만나시고-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내리워지고 - 무덤에 묻히시는 장면입니다.

본당 천장이 왜 평면이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첩첩이 쌓인 구름을 표현한 것이며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본당 3층 로비에도 아치형 색유리창이 있어, 오후 찬양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면 색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형형색색의 빛이 마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린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듯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임목사님은 선교활동에 열정적이셨습니다. 매 주 설교하신 내용을 격주로 '영암의 강단'이라는 소책자와 설교테이프를 제작해 국내외에 배포하셨습니다. 외무부 우편 행랑을 통해 해외 주재 공관 직원들에게도 자료를 보내셔서 해외동포 신앙지도에도 기여하셨습니다.

임옥 목사님이 소천하신지 벌써 20년이 되었지만 목사님의 열정과 사랑이 이 교회 곳곳에 남아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감사하며 목사님을 추억해봅니다.

Y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



이성례 집사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귀하신 강사 한기채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사경회를 통하여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서 믿음 약한 나를 붙들어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심도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경회 첫째날

사경회가 시작되기 전 교회 안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자리에 꽉 차 있을 때 한기채 목사님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으시고 “성도들은 좋습니다~” 화답할 때 이미 성전에는 하나님 성령이 함께하고 계신 것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첫 시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는 전쟁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사경회 둘째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가 실망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베드로를 만나주신 하나님, 지식은 성공을 높여주지만 실패는 그릇을 크게 해준다는 말씀은 나를 향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한때는 실망과 좌절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못난 내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 마저도 못난 저의 모습이란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만을 외치면서 실패는 불행으로 여기지만 믿는 사람은 실패하는 것도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은 실패했을 때 다시 회개하고 용기있게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다듬어 회복시켜주시고 주님께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주님 한분만 바라보고 믿음만이 능력임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영암의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Y

영암교회 65주년을 기념하며



◀영암교회 처음 예배당
(55.4.10 - 예배당 건축 후
이전하여 첫 부활절 예배드림)

영암교회 두번째 예배당▶
(주차장 쪽에서 바라본 모습)



영암교회 두번째 예배당
(후문 쪽에서 바라본 모습)▼



영암교회 두번째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세번째 예배당 기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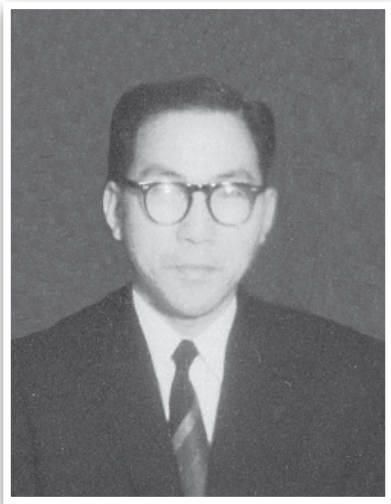
세번째 예배당 완공▼



▲교육관 기공예배

현재 리모델링을 마친 교육관 모습▶





▲ 제1대 김지석 목사님 (58.3.21~60.12.12)



▲ 제2대 황광은 목사님(61.1.22~70.7.15)



▲ 제3대 임옥 목사님
(70.10.18~92.1.19)



▲ 제4대 서정호 목사님
(92.4.21~2012.6.24.)



제5대 유상진 목사님
(2012.7.1 ~ 현재)▶



▲ 영암교회 초창기 주일학교



▲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한 황광은 목사님
(외부 성경고사 대회에서)



▲ 어린이주일 유아세례식



▲ 2008년 해피파티



▲ 50주년 기념예배

사랑과 배려가 가득한 아기학교



이은혜 사모

첫째 아들 주환이가 졸업하고, 둘째 딸 재인이가 이번 가을 첫 학기를 보낸 영암교회 아기학교는 제겐 꼭 잔치 같았습니다. 너무 소중해서 오래 마음에 간직하고픈 선물 같은 것이죠. 영암 아기학교를 만난 것은 우리 아이들과 저희 부부를 깊이 사랑하시는 아바 아버지의 깊은 사랑의 인도하심을 느낍니다. 아기학교를 통해 아이는 사랑을 받았고 육아로 지친 저는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반갑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아기와 엄마를 이토록 환영해 주고 맞이해 주는 곳이 어디 또 있을까요? ‘노키즈존’ 또는 ‘맘충’과 같은 신조어들이 보여주듯 아이와 그 부모들이 혐오나 불편의 대상이 된 사회에서 말이죠. 그런데 이 곳 영암 아기학교는 달랐습니다. 문을 들어서자마자 해맑은 웃음으로 ‘너를 많이 기다렸다고, 네가 와서 너무나 기쁘다’고, 마음 가득 사랑한다고 하는 듯 아이들에게 이름표를 붙여주고 아이가 맛있게 먹을 간식을 정성스레 주어 주시는 선생님들.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환영하며 온 몸으로 끌어안아 기도해 주시는 전도사님.

영암 아기학교의 환대는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전도사님과 고생하시는 선생님 모두가 아이를 진심으로 기쁘게 맞아 주셨어요. 그 모습은 불안하고, 지치고, 외로운 육아 속 냉랭했던 제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녹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맞이하시지 않을까요? 달려와 입 맞추고 각 사람의 이

름을 기억하시며 사랑한다, 잘 왔다고 부둥켜안고 기뻐하시는 영암 아기학교의 선생님들처럼 말입니다.

또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찬양과 말씀, 프로그램에 감사합니다.

영암 아기학교의 모든 프로그램에는 아이들을 향한 정성과 사랑 그리고 배려가 가득했습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재미난 노래와 찬양, 마음을 울리는 따뜻한 음률과 가사, 재미난 이야기 말씀, 신나는 놀이 프로그램이 있는 시간. 아이들에게 그 모든 시간이 즐거운 놀이 시간이자 함께 온 보호자와의 교감의 시간이었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손뼉을 치고, 눈을 맞추고, 몸을 흔들고, 엄마 등에 올라탔다 내렸다, 까르륵 거리고 신나하는 아이를 바라보자면 함께 온 제 마음도 신이 났습니다. 내 아이의 즐거운 마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 그 시간은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를 꼭 끌어안고 ‘너를 사랑해, 너를 축복해, 네가 있어 참 좋아’라며 그 동안 고백하길 잊었던 사랑의 마음을 잔잔한 음의 노래들로 전할 때면 깊은 충만함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사님과 선생님에게 부어주신 그 따뜻한 사랑이 흘러 부모인 우리에게 전해지고 그 따뜻함이 우리 아이들을 포근히 감싸주고 있는 것 같았죠.

매주 정성껏 준비해 오시는 성경 말씀과 교구들에 감동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설교하시기 위해 수고하시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아이들을 생각하고 배려하시는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기들이지만 우리 어른들이 그러하듯 애쓰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보며 따스한 사랑의 하나님을 느끼고 만났

으리라 생각합니다.

정성스럽고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귀빈이 되어 거한 대접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돌보다 보면 제대로 된 식사를 챙기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제게 아기학교에서 준비해 주는 식사는 위로와 쉼이었습니다. 맛있고 예쁘기까지 매주의 정성스런 메인 요리와 알록달록 신선한 과일, 수제 음료까지. 매주 정성이 넘치는 귀한 식탁은 아이를 돌보느라 고생 많으며 위로하고 보듬는, 쉼을 주는 따뜻한 한 상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에게도 입과 눈을 만족시키는 정성스런 최고의 식사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기학교라는 그 작은 이름 안에 담긴 사랑, 섬김, 위로, 힘이 얼마나 충만히 담겨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기학교를 준비하고 이끌어 가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하나님 사랑으로 강하게 무장된 군사 같았고 그들을 통해 마구 쏟아져 나오는 사랑의 파도에 출렁대다 보면 아이도, 그를 키우는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위로를 받았고 보듬을 받았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게 가능토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얼마나 크고 놀랍고 섬세한 것인지 온몸으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신 아기 학교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모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학기를 또 기대합니다^^ Y



예담동산을 다녀와서



유일균 성도

예담동산 주바라기 94기 (2019. 8. 12 ~ 8. 15) 3박 4일간의 과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서프라이즈 !!!”였습니다.

즉 제게는 감동과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

김웅태 장로님의 적극적인 권유도 있었고, 새로이 다시 시작한 믿음의 삶을 산 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세상사를 떠나 제 자신과 저의 믿음 및 신앙생활에 대한 성찰과 저의 작은 모닥불 같은 믿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활활 타오르는 불 같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예담동산에 참여하였습니다.

과정의 첫째 날은 생소한 분위기와 진행으로 조금은 불편하였지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언행과 모습, 그리고 제가 속해 있던 94기 아리랑방의 좋은 분들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하여 이내 적응되어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로요(Rollo)의 과정을 통하여 나의 믿음과 올바른 신앙 생활, 경건한 삶에 대한 깊은 성찰과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계속되는 찬양의 시간에 반복하여 부르는 찬양 가사를 되새김으로써 그 의미를 깨닫고 감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할애하여 사랑의 섬김을 통해 은혜를 나누는 도우미들의 모습, 예배 및 기도 때 뜨거운 가슴과 왈각 쏟아지는 눈물, 계속되는 데 콜로레스(De Colores)와 팔랑카(Palanca), 그 외의 모든 퍼포먼스(Performance)는 제게 연속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감명을 주었습니다.

예담의 시간은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변화시켰고, 제 삶의 이상과 저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분명하게 하였고 이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결단케 하였습니다. 이제 저도 주님께서 제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 섬김을 타인들에게 베풀며 저에게만 한정하였던 이기적인 믿음과 삶에서 벗어나 세상을 위한 믿음과 사랑의 섬김으로 은혜를 나누며 살고자 하며, 그것이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요 기쁨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며, 성령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받은 은혜를 잃지 않기 위해 은혜를 나누며, 예담동산 후 계속되는 제4일의 삶을 살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Pescador)가 되어 살고자 합니다.

예닮동산의 시간을 통해 제게 은혜 내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여러 찬양 중에 가장 마음에 와 닿은 찬양으로 저의 간증을 마칩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아멘.

환송 및 환영회를 해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Y

부모의 기쁨보다



홍선기 집사

큰 아이가 돌이 되었을 때 돌 잔치에 초대된 분이 적어주신 편지의 마지막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00아, 지금처럼 늘 부모님의 기쁨이 되렴.”

당시 두 아들을 훌륭하게 잘 키우고 계셨던 분이 써주신 편지글이다 보니 더욱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너무 좋아서 그 이후 아이들에게 편지를 쓸 일이 있을 때면 이 말을 인용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무서움을 이번 부모교육을 통해, 그리고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부모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일 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더욱 더 ‘부모님의 기쁨이 되라’고 해서도 안 되었고, 부모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아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시키지도 말아야 했습니다.

사춘기 자녀를 부모의 기쁨을 위해 키우며 자랑스러워했던 이유남 강사님에게 찾아온 부모와 자녀, 그리고 부부간의 위기와 이를 극복해 내가는 과정 속에서 ‘코칭의 기술’을 알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눈물을 흘리며 듣게 되었습니다.

강사님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같은 입장이 되어 아이와의 예전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일하느라 바쁘다는 이유를 대며 아이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얘기했던 일들이 떠올라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직업상 ‘부모교육’을 누구보다도 많이 들었던 한 사람으로서 아이에게 좀 더 많은 배려와 칭찬을 하지 못하고, 경청의 기술을 알면서도 잘 활용하지 못한 채 언제 쓰러

고 아껴두기만 했던 것 같아 엄마로서 후회의 눈물이 났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우리 아이가 했던 부모를 향한 공격과 복수의 언행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고, 학교를 잘 다녀 준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강사님의 저서 [엄마 반성문]도 부모교육 당일 구매하여 하루 만에 모두 읽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편에게 읽어보도록 권유하는 것이 큰 숙제가 되었습니다.

큰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아이와의 관계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진로 문제 때문이었는데, 원래 공부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운동을 즐겁게 하던 아이였기 때문에, 과외 교습 학원은 빼먹는 것이 일상이었고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영혼 없는 학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무단으로 학원에도 가지 않고 야간자율학습에도 잠을 자고 선생님과 부모님 몰래 중학생 때는 거의 관심도 없던 PC방을 드나들더니, 1학년 2학기 말이 되던 어느 날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 부모 앞에 무릎을 꿇고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을 때에야 사태가 심각함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공부를 포기할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처음으로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찾았다고 하며 2학년부턴 교내 체능반(체대 입시 준비반)에 들어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투자하지 마세요. 괜히 학원을 이리저리 알아보지도 마시고 등록을 해도 저는 전혀 다닐 생각이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축구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엄마·아빠가 모두 못하

게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싶고 제일 잘 할 수 있는 운동으로 학교에 가고 싶어요.”

아이는 아빠와 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보이며 설득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우리 부부는 며칠의 부부싸움과 열띤 의논 끝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방학 때 열심히 도시락을 싸주면서 응원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된 아이는 체대 입시 학원은 기본 적도 없었지만 학교의 입시방침을 잘 따르며 학교 내 체능반에서 입시를 준비하였고, 실기 점수로만 본다면 합격이라 생각했던 대학에 결국은 아쉽게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다른 곳에 합격한 학교는 너무 먼 곳에 있는 학교였기에 진학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합격자 조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학교 홈페이지를 열어보다 눈에 들어오는 큰 글씨를 보고 눈물이 왈칵 쏟아져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 5:14)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곳은 우리 부부가 꿈꿨던 학교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

습니다. 날마다 학교 전체에서 내뿜어져 나오는 주님의 향기를 느끼고 주의 성전 뜰을 밟고 학교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매일 감사합니다.

큰 아이와, 또 7살 아래 막내 아이에게 이제 이렇게 편지를 써주려고 합니다.

“엄마의 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줘서 고마워. 어릴 땐 엄마 마음대로 골라준 로션을 3초 만에 발라주고 얼른 유치원에, 학교에 가라고 했었지. 커서는 엄마가 정말 바빠서 우리 아들이 어떤 로션을 바르고 다니는 지도 잘 모르고 있었던 거 너무 미안했었는데 이제 알려줘서 고마워. 방문도 걸어 잠그지 않고 엄마하고 얘기해주고 같이 밥도 먹고 학교에 잘 다녀주어서 늘 고마워. 늘 가슴 뛰는 설레는 일들로 가득하길 기도할게. 사랑해 그리고 축복해. 우리 두 아들”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저를 위해 기도하며 키워주시고 지금도 기도하시는 어머니께 다시금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더 이상 [엄마 반성문]을 쓰지 않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Y**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



김미숙 집사

저는 열세 살과 열 살 된 딸 둘을 키우고 있는 학부형입니다. 언젠가부터 큰 딸과 대화할 때면 답답하고 끝까지 시원하게 대화가 안 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항상 어린 줄만 알았던 큰 딸은 그동안 친구관계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저는 알

아채지 못했고 알고 난 후에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의 기준과 작은 틀에 사랑하는 큰 딸을 가둬두려 해서 서로 관계가 힘들어지고 점점 잔 소리가 늘어났습니다. 제가 아이를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마음을 많이 내려놓으려고 노력하고 있던 중에 부모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목회상담학 이상억 교수님을 모시고 청소년, 청년 부모교육을 받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청소년기의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친밀감과 일치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지금의 아이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은 자녀들이 다음 세대라고 생각하지만 자녀들은 다른 세대로 인정해주길 원한다는 말씀에 많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아가 성장하고 독립심이 생기는 것에 대해 인정해주지 못했던 딸에게 미안했고 부족한 저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청소년 자녀들은 교회예배와 수련회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변화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도 이 시간들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친밀감을 느끼는 전도사님과 선생님, 친구들과 시간을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청소년기의 아이들과 친밀해

지고 위로를 주고 싶다면 첫째, 시간을 함께 해야 합니다. 둘째, 정서를 공유해야 합니다. 셋째, 지적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어 보입니다. 자기만의 시간을 즐기려는 자녀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하고 정서를 공유하기 위해 빠르게 변화하는 유행에 관심을 가져야하며 아직은 가르쳐 줄 것이 많은데 지적하지 않기 위해 꼭 참고 인내해야하는 것입니다. 많이 부족하고 힘들지만 두 딸을 위해서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노력해보면 어떨까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고 합니다. 부모의 눈에 자녀들이 조금은 답답해 보이고 헤매는 것 같아 보여도 스스로 충분히 많은 것을 돌아보고 판단할 여유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들도 자녀들을 연습한 후에 키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녀들 눈엔 부모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부족해보일까요?

청소년들도 부모가 초보자임을 인정해주고 서로 이해하며 친밀해지는 앞으로의 시간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교수님이 읽어 주셨던 시 한편 함께 공유하고 싶어 소개합니다. **Y**

만찬 / 함민복
혼자 사는 게 안쓰럽다고
반찬이 강을 건너왔네
당신 마음이 그릇이 되어
햇살처럼
강을 건너 왔네
김치보다 먼저 익은
당신 마음
한 상
마음이 마음을 먹는 저녁

2019 가을학기 초등2부 비전스쿨 소감문

학생들이 익명으로 게재하기를 위하여 실명 대신 학생 A,B,C...로 올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학생A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에 의심이 좀 있었는데 비전스쿨을 하면서 의문이 풀렸다. 간식이 맛있었다.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비전스쿨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학생B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주후 33년 경)을 알게 되었고, (복음서를 글로 기록하기 이전에) 암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다는 게 대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목사님이 주시는 간식이 맛있었고, 다음번에는 간식을 더 많이 주면 좋겠다. 또 차근차근 내가 몰랐던 것을 가르쳐주셔서 너무 좋았다.

학생C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되었고, (신약시대 사도들 처럼) 암기를 더 잘 하면 좋겠다.

학생D

새롭게 알게 된 점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이야기다. 좋았던 점은 간식이 맛있었던 점과 성경에 대해 알 수 있었던 것이다. 목사님이 쉽게 설명해주시고 친절하셔서 좋았다. 아쉬웠던 점은 딱히 없다.

학생E

만화를 통해 성경에 접근한 점이 좋았다. 성경은 어려워워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번 기회를 통해) 쉽게 알 수 있어서 좋았고, 공부를 하는 중간에 간식도 먹

을 수 있어서 좋았다. 그동안 성경에 대해 잘 몰랐는데 자세히는 잘 몰라도 대충이라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게 된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좋았고, 평소에는 주말에 잘 일어날 수 없었는데 (비전스쿨 때문에라도) 더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개운하게 맞이할 수 있었다.(아침에 일찍 와서) 좀 귀찮기는 하지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학생F

배우면서 복음서를 쓴 마가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 마가는 팩트로 마가복음을 썼다(=직설적인 어투로 썼다, 편집자 주). 그리고 마가는 이전에 겁이 많아서 1차 선교여행에서 탈주(=중도하차, 편집자 주)했다. 하지만 그 후에 마가는 죽을 각오를 하고 (그 당시) 로마 황제 앞에 붙이는 단어를 예수님 이름 앞에 쓴 배짱이 두둑한 사람이다. 배우는 동안 너무 재밌었다. 중등부에 올라가서도 (비전스쿨을) 계속 할 거 같다. 정말 즐거웠다. Y



아버지 되어 주신 하나님



김경화 성도

저는 2016년 7월 말경 이 곳 안암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당시 교회 정문 앞에 저희 집이 있었습니다. 2018년 8월경에 초등학교생인 아들이 친구 초대로 여름 성경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아이와 함께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1년 전까지만 해도 부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주일 예배만 드릴 생각이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저의 마음의 근심을 조금이나마 덜어보고자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저의 선택이고 결정인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처음의 생각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일들이 거침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새가족부에서의 공부, 등록, 구역 연결, 담임 목사님과의 식사까지 무언가의 끌림을 받는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후에야 알았습니다. 새가족부 교육을 마치고 약 3개월 정도 흐른 후에 이영희 집사님의 권유로 일대일 제자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오리엔테이션 하는 날 저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두꺼운 수업교재도 부담스러운데 말씀 미리 예습해오기, 성경 읽기, 성구암송, 목사님의 주일 설교요약, 매일 성경으로 큐티해오기, 찬양곡 골라오기 이 많은 숙제를 매주 해야만 했습니다. 어떡하나? 못하겠다고 말씀드릴까?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를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내어 이끌어 주시는 권사님께 도저히 그리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수업이 2-3주 지나고 나니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께서 성경 말씀을 얼마나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지, 그 당시의 상황이나 배경까지 아주 상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성경의 매력에 빠지면 헤어내기 어렵다는 걸요. 하나님 말씀은 신비롭고 재미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지 알게 되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끔찍하고 치욕스런 죽임을 당하셔야 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시작했을 때와 다르게 일대일 제자 양육의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자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왜 이제야 그 분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그 분께서는 끊임없이

저를 부르셨는데 저는 왜 이제야 그 분 목소리를 들었을까요? 수업 기간 동안 저는 믿기 어려운 일들도 몇 번 경험했습니다.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살던 집이 빠지지 않은 상태로 다른 집을 계약했습니다. 보증금이 묶여있어서 이사 갈 집의 대금을 전부다 따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수중의 여유 자금도 없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의 사정을 모두 보고 계셨습니다. 그 돈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더욱이, 살던 집은 내놓은 지 하루 만에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교회 후문에 있는 대광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이사하기 몇 달 전부터 제가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했던 곳이 바로 대광아파트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건 지금 저의 집주인 되시는 분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이사 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다른 곳으로 가라 하셨다 합니다. 이렇듯, 분명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일사천리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가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힘없이 나약한 저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요.

저는 이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에게는 아버지가 새로이 생겼습니다. 늘 저의 곁에서 항상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늘 아버지가요. Y



여러분, 영암 골프 문화교실로 오세요!



기노창 안수집사

[영암 골프 문화교실]이 창립한지 벌써 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관심과 참여로 함께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골프는 부유한 사람들이 하는 운동이라는 편견의 시선들이

아직 주변에 많이 있고 특히 골프를 꼭 교회에서까지 해야 하나 하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라보시는 성도님들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골프는 평생 저와 상관없는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평소 골프를 즐겨하던 몇몇 집사님들께서 운동을 가는데 같이 가자고해서 따라간 것이 기회가 되었습니다.

골프채로 작은 공을 때려 멀리 날리는 모습을 보면서 ‘와! 스트레스는 진짜 확 풀리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집사님들께서 골프를 알려준다면 골프채 잡는 법, 골프공을 맞추는 동작 그리고 전체적인 스윙 자세를 자세히 알려 주시고 한 번 스윙을 해보라고 타석으로 이끌었을 때의 순간이 제가 골프를 처음 접한 날이 되었습니다.

운동이 끝나고 교회 근처 카페로 이동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태어나 처음 골프를 접해 보았다고 말하니 집사님들께서 우리 교회에 (사)한국아시아프로골프협회 회장님으로 계시는 이상호 안수집사님께서 전문 프로 골퍼이니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골프모임을 한 번 만들어보면 어떻겠냐고 나누는 중에 서로 공감되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짧은 순간 골프를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많았고, 골프를 배우고 싶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분

들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많아서 배울 수 없는 분들, 그리고 젊은 청소년들에게 골프 운동의 기회를 만들어 주면 좋을것 같았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작게나마 지역사회를 위하여 재능기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영암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골프 모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골프는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라 바나바, 헬퍼처럼 바로 옆에서 지도하는 분이 있어야하는 운동이기에 친분도 쉽게 쌓고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도도 되는 1석 2조의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한 번 골프 모임을 교회 안에서 만들어 보자고 여건이 될 때마다 관심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이나 장로님들께는 그 취지와 의도를 좀 더 잘 말씀드리고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동안에 ‘영암 골프 선교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비공식적으로 7년 여 동안 교회 안에서 골프 모임을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처음 2층 소예배실에서 골프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다 장소가 적절하지 못하여 교회 안 이곳저곳을 찾아 고민한 끝에 예전에 사용하고 방치되어 있던 교육관 옥상 탁구장을 보수하여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파이프 뼈대로 앙상하게 남아있는 비닐하우스의 낡은 시설을 회원들이 자비량으로 보수하였습니다. 떨어져 나간 철근 파이프를 용접하고, 녹슨 곳에 페인트를 발라 합판을 구입하여 골프 타석을 만들었으며, 청계천 시장에서 그물망과 인조잔디를 구입해 직접 그물망을 씌우고 잔디를 깔아 나름 멋진 미니 골프 연습장처럼 만들어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 후 교육관 리모델링이 진행되면서 모든 회원님

들의 기도와 관심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주 새로운 멋진 미니 골프 연습장을 만들도록 인도하셨고, 더불어 다음세대를 위하여 풋살장 까지 덤으로 건축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후로 리모델링된 교육관이 드림센터로 개관되면서 7년 여 동안 영암 골프 선교회를 운영하고 있던 것을 당회를 거쳐 2018년 공식적으로 [영암 골프 문화교실]로 정식 등록되어 창립 예배를 드리는 은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히, [영암 골프 문화교실] 창립 이후에는 골프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위하여 골프 이론과 실기를 동시에 익히는 골프 전문가 교과 과정을 개발하여 강의식 골프 전문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작은 바람이 있다면 영암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영암 골프 문화교실]을 통해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건강한 다음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기쁨을 알아가고, 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는 다음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드러내는 다음 세대로 자라 가기를 기도해봅니다.

운동과 믿음은 서로 상통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모든 운동은 기본이 잘 잡혀야 하고 힘을 빼야 잘할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지고 힘을 빼며 나를 부인하고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골프는 드라이버, 우드, 어프로치, 아이언, 퍼터 등 여러 종류의 채가 있듯이 믿는 우리들의 성향과 기질도 다 다양하기에 다양한 모든 채는 손잡이를 잘 잡아야 칠 수 있고 우리의 믿음도 각각 다르지만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꼭 붙들린바 되어야만 믿음의 롤 대로 이 세상을 잘 살아 낼 수가 있다는 것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아주 신나는 건 타석에서 공을 멀리 칠 때입니다. 저의 죄를 살며시 공 위에 올려놓고 “동이 서에

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시편103:12)라는 말씀처럼 저의 죄를 실어서 멀리 날려 보내는 겁니다. 골프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의 죄 사함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특별한 은혜의 경험이 있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우리 [영암 골프 문화교실]은 실천 5대 목표가 있습니다.

“예배, 선교, 전도, 봉사, 친교”입니다.

실천 5대 목표를 실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고대하며 기도와 더불어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영암 골프 문화교실]로 오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사업에 여러분들의 “굿~샷”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17) 네이버 검색창에서 [영암교회 골프 문화교실]을 검색해 보세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 **Y**





추수감사절 찬양한마당





영암전도학교 교육을 마치며.....



이성달 집사

올해 전도부 부장님이신 김웅태 장로님의 권유와 아내(성외경 집사)의 권면으로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영암전도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어느덧 일 년이 지나고 뒤돌아보니, 나 자신에게 꽤 유익한 시간이었다. 회사의 바쁜 업무로 인해 아침 경건 시간에 자주 늦어 죄송하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수료하게 되어 감사하다.

먼저 믿음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위한 "기독교ABC", "인생 네비게이션"등의 교육을 통해 나의 믿음을 올바른 기초위에 세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고 또 일 분 메시지를 통해 전도를 위한 대화의 기술을 배우고 익힐수 있는 유익한 기회였다.

예를 들어 전도를 할 때면, 기독교에 상당히 부정적인 사람들은 대뜸 “하나님을 봤어요? 당신이 직접 만나 봤냐구요” 라고 반문하는 경우가 많다.이럴 때 “공기가 눈에 안보이지만 숨을 쉬어 보면 공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전파도 눈에 안보이지만 TV를 켜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믿어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대응하면 적절한 답이 될 것이다,

또 믿지 않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거짓말을 잘 하더라” 또는 “나쁜 사람이 더 많다” 등등 교인들에게 상처 받았다고 말씀 하시는데 이 경우에는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병원에 환자가 많듯이 교회에는 죄인들이 많아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요. 그런데 병원에 환자가 많은 것이 싫다고 가지 않아서 아픈데도 치료를 받지 않으면 나만 손해잖아요? 병원에 의사선생님 만나러 가는 것처럼 교회는 영적인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라는 말로 이해시켜 드릴 수 있다.

이와같이 전도의 현장에서 꼭 필요한 대화의 몇 가지 기술을 익히고 암기하여 학생 서로간에 실습을 하였고 이를 통해 전도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가 있었다.

또한 매 시간 교육 후엔 전도학교 학생들과 소그룹 나눔을 통해 지역전도와 지역의 기관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남성들을 공략하기 위한 관계전도에 대한 유익한 많은 대화를 가졌다.

이렇듯 영암교회 전도학교를 비롯한 지역전도는 꽤 체계적이다.

전도에 관심있는 성도가 전도학교에 입학하면 먼저 이론적,기술적으로 무장하고, 준비가 되면 교회주변에 나아가 믿음이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전도 실습을 하고, 졸업 후에는 상시 전도팀으로 합류한다. 그리고 연로 하셔서 직접 현장을 나가지는 못하지만 전도의 열정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노권사님들은 중보기도팀

으로 구성되어 기도로 전도를 지원 하신다. 방학의 휴식 기간도 마다 않고 중보기도로 함께하시는 노권사님들의 간절한 기도는 영암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초석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노력하는 영암교회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린다.

문득 한 집사님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원인을 모르는 가려움증으로 병원을 다니시며 치료에 힘쓰셨으나, 근본치료가 안되어 영암 전도학교 상반기 교육을 마치고 포천의 어느 한적한 물맑고 공기좋은 곳으로 요양차 떠나셨다. 전도학교를 함께하며 서로의 믿음과 전도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던 집사님....잘 지내시는지 이 글을 마치면 전화로 안부라도 여쭙어야 하겠다.

아울러 전도학교로 1년을 함께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전도학교를 이끌어 주신 김남균목사님과 김웅태장로님 그리고 매 주일 진행을 위해 애쓰신 임원진과 기도로 응원해주신 중보기도팀, 추우나 더우나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키 위해 교회 주변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상시전도대, 그리고 전도에 관심과 뜻이 있어 열정을 가지고 함께한 전도학교 학생들,...

모두 함께 해서 더욱 보람되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새해에는 더욱더 많은 성도님들이 전도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면 좋겠다. 특히 더 많은 남자성도님들이 함께해서 믿음의 기초를 다지고 주변의 기관이나 기업체의 전도에 확산을 위해 관계전도의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한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Y



함께 살아가고, 살아내고 싶다!



최석빈 목사

살롱! 안녕하세요!

영암공동체 모든 성도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2020년부터 청년공동체와 교육부를 담당하게 된 최석빈 목사입니다.

먼저 저를 소개하는게 좋겠지요? 저는 재수를 할 때 부산에서 1년 동안 생활한 것을 제

외하고는 고향인 울산에서 자랐습니다. 이후 장로회 신학대학교 학부 신학과에 입학하여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가 된 지금까지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부 시절 청년으로의 삶을 살아가보고 싶어 잠실에 있는 주님의 교회 청년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함께 찬양팀을 섬기던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지금은 은혜 가운데 예성(8), 예훈(6)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한 가정을 이루어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늘 1층에서만 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두 아들이 저를 참 많이 닮아서요^^)

저는 한 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싶어 모태신앙으로 자란 환경을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 것이 얼마나 큰 복이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저희 가정에게는 특별한 한 해였는데요. 존경하는 아버지께서 약 23년간 울산삼산교회에서 귀하게 섬기시고 은퇴와 함께 원로장로로 추대되었습니다. 늘 성실함과 정직함을 강조하셨던 가르침을 몸소 삶을 통해 보여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저 역시도 언젠가 삶으로 자녀들에게 말할 그 날을 기대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청소년 시절 IMF가 찾아왔을 때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힘들어 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저를 부르심의 길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저 교회가 좋았고,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행복했던 저는 맘 편하게 교회에 있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겠다는 생각에 사역자의 길을 가리라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모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래, 훗날 우리가 너의 진로에 대해서 다시 질문했을 때도 그 맘이 변함이 없다면 네 뜻을 존중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일까요.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내일도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하루 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역자로써 첫 걸음은 청년시절 멘토 목사님과 함께 청년공동체 교회를 개척하며 시작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당시 교회 이름처럼 “이름 없는 교회”로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자 다짐하며 역삼동 한 복판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사람들을 만나고 네트워크를 해 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고자 몸부림쳤었습니다.

이후 합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남양주시에 있는 동부광성교회에서 고등부 사역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청년부, 교육부 총괄로 7년이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노획의 어려움으로 인해 목사 안수 시기가 지연되었었습니다. 약 2년 6개월 정도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는데, 참 마음이 힘들기도 했지만 그만큼 부르심의 길, 교회를 향한 마음을 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더욱이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많은 손길이 있음을 알게 되

었습니다. 그렇게 사역자의 길을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님을 확신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영암교회의 가족이 되어 내년부터 청년공동체와 교육부를 맡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 지역을 잘 모릅니다. 정말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 맡기신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저에게 한 가지 기대가 있다면 “함께 살아가고 살아내고 싶다”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귀하게 자라가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 치고 있는 청년들, 그들을 세워가기 위해 씨름하고 계신 부모님들과 각 가정의 현실이 사역의 현장이요, 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씨름하며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분명 귀한 열매가 있을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경상도 남자이기는 하지만 A형에 막내아들입니다. 겉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조금은 소년 같은 모

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급적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잘 웃는 편이지만 어색할 때에도 그저 웃으며 극복하는 편입니다. 운동도 좋아하지만 그만큼 먹는 것도 좋아하고 살도 잘 찌는 편이라 때론 고무줄처럼 몸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목소리가 크고, 친밀해 지거나 조금 당황할 때에 저도 모르게 사투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 외에는 함께 보내는 가운데 저 자신도 저를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회에 처음 방문했을 때는 참 많이 긴장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첫 예배와 함께 인사를 드리는데 손을 꼭 잡아주시며 “새로 오신 우리 목사님이시구나...”라며 격려해주신 성도님들의 온기가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 큰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자이기에 참 좋은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사역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담임목사님과, 사랑 넘치는 우리 부목사님들, 열정 넘치는 전도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시간들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Y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이승현 전도사

안녕하세요? 영암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영암교회 초등2부로 부임하게 된 이승현 전도사입니다. 먼저 영암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를 간단히 소개 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 왔고, 교회와 학교 그리고 가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특별히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매주일 저녁마다 가족들이 함께 드리는 가정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 갈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여름, 저는 학교 선후배들과 함께 농촌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모르시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그 할머니를 위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매일매일 한 영혼을 찾아 눈물로 헤매시는 하나님의 갈급한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토대로 저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신학대학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은 힘겨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며, 공부할 수 있는 귀한시간이었습니다.

신대원에서 공부하면서 저는 배움과 교제의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신학적인 시각과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뿐입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올해 초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한 것입니다. 현재 저는 아내와 함께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서로에게 비타민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저도 영암교회와 초등2부의 비타민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들을 말씀과 기도로 교육하며,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함께 꾸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와 중보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영암교회에서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점점 빠르게 변화하며, 온기가 없이 삭막해져가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때와 시간에 맞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영암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Y

가족같은 공동체 영암교회



김승철 전도사

살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11월 24일부터 영암의 가족이 된 초등 1부 전도사 김승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암지를 통해서 성도님들께 다시 한 번 인사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스무 살 때부터 고향인 창원을 떠나 서울에서 학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차를 타면 왕복 10시간이 걸리는 거리이다 보니 방학 때를 제외하고는 집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데, 이런 저를 보시고 부모님께서는 우스갯소리로 “유학생생활을 하고 있다”고 표현하곤 하십니다.

고향을 떠나 타향생활을 하면서 다른 것들은 적응을 했지만 딱 두 가지 적응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말과 가족의 빈자리입니다. 주위의 다른 지방 친구들은 곧잘 서울말을 쓰곤 하는데 이상하게도 저는 사투리가 입에서 떨어지지 않아서 참 난감합니다..^^; 그리고 가족의 빈자리로 인한 외로움은 언제나 저에게 크게 다가오곤 합니다.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과는 별개로 가족이라는 공동체에서만 느낄 수 있는 따스함이 제게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영암교회는 이미 제게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된 것 같습니다. 언제나 밝은 미소로 맞아주시는 성도님들과 부족한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주시는 초등 1부 선생님들, 무엇보다도 애틋 목소리로 전도사님!을 외치며 질문을 하는 우리 초등1부 아이들을 볼 때면 언제 그랬냐는 듯 외로움이 사라지고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가족같은 공동체인 영암교회에 부족한 종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 낮아지고, 더 공부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겠습니다. 지켜봐주시는 영암교회 성도님들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며칠 안남은 2019년 건강 조심하시고, 2020년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한 해되기를 바랍니다. 영암교회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초등 1부 친구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구쟁이 초등1부 친구들아, 좀 더 빨리 우리 친구들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마음이 전도사님 마음가운데 가득하네, 전도사님은 우리친구들을 보면 자식을 낳아본 적도 없고 키워본 적도 없는데 아빠미소가 지어져!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너무 좋나봐^^하하하~ 앞으로도 전도사님과 함께 즐겁고 재밌게 하나님 말씀 배우도록해요! 우리 초등1부 친구들 언제나 사랑하고 축복해요~!’ Y

최고의 기독교 애니메이션을 만나라 -‘천로역정’과 ‘더 크리스마스’-



강진구 안수집사
(영화평론가)

기독교 고전의 가치를 확인한 ‘천로역정’

기독교 애니메이션계가 꿈틀거린 한 해였다. 비록 국내에서는 장편 만화영화 한 편만이 개봉되는데 그쳤지만 그 위력은 제법 컸다. 그동안 수입한 영화들의 연이은 흥행부진으로 어려움에 처해있었던 ‘CBS

의 영화사업부’를 소생시키는 119 역할을 톡톡히 해냈으니 말이다.

로버트 페르난데스 감독의 <천로역정:천국을 찾아서>는 기독교 고전의 힘을 보여준 애니메이션이었다. 존 번연의 고전 명작 <천로역정>(The Pilgrim's Progress)을 컴퓨터영상합성기술(computer generated imagery)을 통해 세련되고 기품 있게 만들었다. 디즈니의 톡톡 튀고 감각적인 영상미와는 다르게 고전적인 작품의 정취가 잘 묻어나도록 안정감 있는 색채와 캐릭터를 구성하였다. 이것은 <천로역정>이 애니메이션 세계에 있어서 장점이자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최고의 기독교 소설의 내용과 의미에 집중하도록 시선의 분산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점은 장점임에 틀림없다. 비교적 단순한 이미지는 주인공 크리스천의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면서 기독교 고전으로서 관객에게 전하는 메시지에 집중하도록 만든다.

단점은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 시킨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에 익숙한 관객이라면 다소 실망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천로역정>은 신세대적 관점에서 보자면 판타지 장르에 속한다. 그리스도인의 인생 여정 가운

데 있을 수 있는 각종 유혹들이 은유로 묘사되고 있지만 초월적 존재와 세계를 묘사하기 때문에 인터넷 게임이 보여주는 판타지적 이미지에 익숙한 젊은 사람들이라면 마음에 썩 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신세대들에게 애니메이션을 통해 신앙을 전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애니메이션이 갖고 있는 기술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숙제를 남긴다. 메시지를 통해 관객을 ‘납득’시키려 하기 보다는 그림의 감성을 통해 우리가 가야할 신앙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니메이션 <천로역정>은 공식 극장관람 인원이 296,588 명이라는 기독교 영화사상 최대의 관객을 동원하는데 성공했다. 이것은 기독교 고전의 힘이다. 신앙에 정말 유익이 되는 기독교 고전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읽기에 부담스러운 것이라는 선입견과 시간상의 이유로 책을 접할 수 없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애니메이션 <천로역정>은 17세기에 쓰인 명작이 21세기에 와서도 여전히 신앙을 성찰하는데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왜 고전이 중요한지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최고의 성탄 애니메이션-‘더 크리스마스’

교회교육용으로 나온 비디오 영화들이 주를 이루었던 기독교 애니메이션 세계에서 극장용 크리스마스 영화로 제작된 <더 크리스마스>(The Star, 2017)는 최고의 기독교 애니메이션으로 꼽히기에 부족함이 없다.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성경에 충실하게 풀어놓았을 뿐만 아니라 동물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재구성한

흥미로운 상상력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진일보한 기독교 애니메이션의 모습을 발견하게 만든다. 특히 <나니아 연대기>시리즈를 제작한 ‘월든 미디어’와 ‘소니 픽처스’의 기독교 브랜드인 ‘어썸 필름’이 손을 잡고 만든 영화란 사실에서 높은 기술적 완성도를 보이며 디즈니의 여느 영화 부럽지 않은 색채감과 화면전개에 있어서 역동성을 자랑한다.

방앗간에서 연자 맷돌을 돌리던 당나귀 ‘보’는 왕의 캐러반의 일행이 되어 왕을 자신의 등에 태워보고 싶다는 소원을 가지고 있다. 드디어 사고를 위장하여 방앗간을 탈출한 ‘보’는 정혼한 사이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발견되어 베들레헴 여행길에 동행하게 된다. 한편 동방박사 세 사람을 태우고 온 세 마리 낙타는 헤롯왕의 사악한 흥계를 눈치 채지만 헤롯왕은 도사견 두 마리와 함께 킬러를 보내 새롭게 탄생할 왕을 죽일 것을 명령한다. ‘보’와 그의 동물 친구들은 마리아와 탄생할 아기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 킬러의 도사견들과의 한판 승부를 펼친다.

<더 크리스마스>의 가치는 동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증언하며 그 분이 참으로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는 데 있다. 이것은 마치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거짓 선지자 발람을 깨우쳐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발람이 타고 가는 당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도록 한 사건에 비견될 수 있다. 성경에 당나귀가 말을 한 사건이 의미가 있듯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만화영화 속에서 말하는 당나귀를 지켜보며 그가 보여주는 성탄절의 깊은 뜻을 보고 들을 수 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일이 둔해지거나 어두워 질 때 하나님은 당나귀를 통해서 깨닫게 도와주셨다면, 현대문화 속의 기독교 애니메이션의 역할은 바로 발람 앞에서 말하던 당나귀의 모습을 재현시키는데 있다.

당나귀가 말을 하다니? 놀랄 일이 아니다. 애니메이션은 모든 상상력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초월적인 일들도 모두 묘사할 수 있다. 당나귀



가 말을 한다고 애들이나 보는 유치한 우화정도로 여겨서는 안 된다. 만화는 어린이들이 많이 보는 장르임에 분명하고 이 어린이들은 만화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기독교 애니메이션은 다른 영화들이 가르쳐 주지 못한 진정한 삶의 자세를 어린이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더 크리스마스>는 주인공 당나귀 ‘보’가 만삭의 마리아를 등에 태우고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장면을 통해 캐러반의 일행으로 왕을 태우고 싶다는 소원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단순한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태운 셈이니 어린 관객들은 우리는 미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깊고 위대한 뜻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으리라.

또한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파견된 킬러의 두 마리 도사견이 ‘보’의 친구들에 의해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지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탄생을 다른 동물들과 함께 지켜보며 경배하게 되는 변화의 과정은 기독교 만화영화가 디즈니와는 사뭇 다른 느낌을 갖게 한다. 기독교 애니메이션 속에서 악당은 영원한 악당으로만 남지 않고 변화한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하듯이 말이다. 자칫하면 잊혀질 뻔한 기독교 최고의 성탄 애니메이션 <더 크리스마스>는 어린이들에게 크리스마스의 느낌을 평생토록 기억하게 만들 만한 작품이다. 메리 크리스마스! Y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오지훈 청년

눈을 떴을 때 저는 약으로 새까매진 피부와 많은 주삿바늘이 꽂힌 채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기억에는 걸어서 고대병원에 들어갔는데, 눈 떠보니 세브란스병원의 환자복을 입고 있었고 많은 선들이 엉켜 제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입원해 본 경험이 없을 정도로 건강했던 저는 갑자기 스스로 몸도 일으키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부족함 없이 자라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당연히 여기며 자만하게 살았던 저는 갑작스럽게 아프면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것만 바라보며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게을리 했던 저는 약의 부작용으로 몸이 간지러울 때, 척수액을 뽑을 때, 매순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야한다는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어지럼증이 없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어머니가 들어주는 찬양을 들으며 기도했습니다.

한 달도 안되는 시간만에 근육이 다 빠져서 걷지도 못하고, 기저귀를 차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끼며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육체적 연약함을 느꼈습니다. 당연히 누리던 것에 대한 감사가 생겼고, 재활치료를 할 때마다, 휠체어에 앉을 수 있음에, 벽을 잡고 걸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어지러워서 눈도 뜨지 못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찬양과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온전히 하나님과 둘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휴식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을 주시고 사랑하시는구나’를 시간이 지날수록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복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해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청년공동체에 속해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는 것을 피하게 되었고 점점 어른예배만 드리고 청년예배를 드리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공동체로 인해 지금까지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뇌염으로 의식이 없는 동안 많은 교인 분들이 병원에 직접 오셔서 또는 각자의 자리에서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저희 가정을 위로해주신 것을 통해 영암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10년을 넘게 어머니를 따라 교회만 다니던 아버지가 다락방 모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굳은 믿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보며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당장의 편의를 위해 공동체를 외면했던 저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일을 통해 우리 가정에도 많은 변화를 주셨습니다. 몸이 어느 정도 회복한 뒤에 부모님의 결심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가정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정예배를 통해 한 주간 느꼈던 하나님을 나누는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주일예배와는 또 다른 은혜가 있었습니다. 가정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도제목을 나누며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 또한 너무 감사했습니다.

계속해서 제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을 넘치게 주시고 넘치게 사랑해주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아프게 되면서 마무리하지 못했던 졸업작품은 회복 후에 마무리하여 공모전에서 큰 상을 주셨고 일상의 모든 것에 감사를 느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의 기준만 바라보고 열심히 할 때와 달리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결심과 고백으로 정말 많은 것을 쏟아주시기를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오직 주님만이 아시지만 그 계획에 언제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키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살려주신 하나님과 기도해주신 영암가족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Y**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옴의 고백’ 중에서-

전도의 소중함



김미숙 집사

샬롬~

저는 영암교회 전도학교 상시전도대에서 전도하며 주님을 이웃을 섬기고 있는 김미숙집사입니다.

약 5년 전 여름 감기를 앓고 있었는데 좀처럼 낫지 않아 병원에서 링거주사도 맞고 약을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기 전에 꿈인 듯 생시인 듯 아주 환한 곳을 보았습니다. 빛이나 태양빛 같은 것이 아니고 그냥 눈부시긴 하지만 눈은 부시지 않은 정말 밝고 환한 곳을 보면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깨어난 그 순간 저는 잠깐 동안 내가 누군지 내가 무슨 생활을 하고 살았는지 살아온 내 삶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백지 상태인 저를 느꼈습니다

그리곤 깨달은 것은 ‘아! 내가 오늘이라도 천국 문이 열리면 그냥 이대로 천국을 가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세울 것도 자랑거리도 없지만 내게 주신 모든 것이 감사로 다가왔습니다 남편도 아들, 딸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이 다 감사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래 이 모든 것 들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애써서 이뤄지는 것이 아닌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제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구나 깨달아지면서 저는 그 때부터 주님께서 제 안에 주신 평안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안에서의 평안을 복음을 전해야지 생각했습니다. 저는 기쁨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전도 학교에 들어와서 전도 학교를 마치고 지금까지 상시 전도대에서 전도 대원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아니 지금이라도 천국문이 열리면 저나 모든 성도님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 많이 많이 하시는 저와 영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³⁵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 하시더니 ³⁶시몬과 밋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³⁷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³⁸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Y** (막 1:35-38)



2019년 대림절 밀알헌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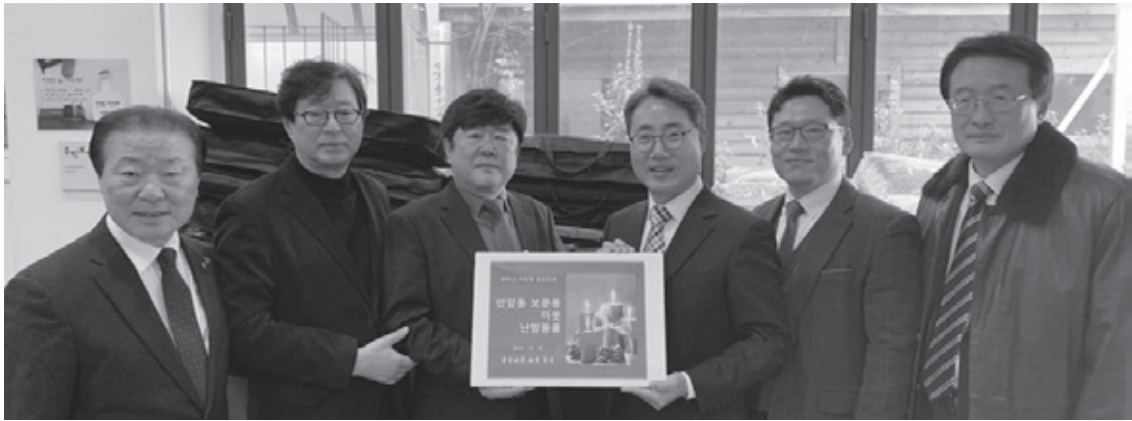


사진 1. 윤만환집사, 보문동장, 안암동장, 유상진담임목사, 김남균목사, 박철장로



사진 2. 보문동장과 함께



사진 3. 안암동장과 함께

- 밀알 1: 안암동 보문동 이웃 난방용품 지원
- 일시: 12월 18일(수), 안암동주민센터 1층
- 내용: 온돌매트와 겨울이불 증정 (안암동 23가정, 보문동 23가정)
- 밀알헌금은 아래와 같이 사용됩니다.
- 사랑의연탄: 2020년 2월 1일(토)
- 자립화 및 군인교회 쌀 보내기: 12월중
- 군인교회 복음캘린더 보내기: 12월중
- 미전도종족 성경보급: 12월중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김길자
(7여 보문2)



김문석
(5남 공릉)



김용태
(여호수아 안암1)



김운천
(마리아 보문6)



김윤경
(7여 보문5)



김태준
(청년공동체)



류영규
(청년공동체)



문선호
(2남 안암6)



박은지
(6여 공릉)



박준영
(3남 삼익1)



서경민
(7여 보문1)



서석영
(4여 안암1)



오미화
(6여 제기종로)



유재근
(청년공동체)



유현순
(에스더 삼익2)



윤숙현
(7여 보문8)



이충문
(6남 다락방6)



전태영
(여호수아 안암11)



조혜숙
(2여 보문8)



한옥희
(3여 보문5)

영암학당 가을학기

- 주일 영암학당 “한 눈에 보는 성경” 권세진목사
- 주중 영암학당 “한 눈에 보는 교리” 김남균목사

늘푸른대학 가을학기

9/19	리듬으로 삶을 깨우는 음악힐링	박진희 강사(유리드믹스 전문강사)
9/26	올바른 체형교정을 통한 심리적 안정	은종원 교수 (연세대 교수, 국가대표 팀닥터)
10/10	소 풍	강원도 철원
10/24	즐거움 힐링웃음	이난나 교수(글로벌웃음협회 전임교수)
10/31	준비된 삶, 아름다운 삶	원주희 목사(샘물 호스피스 선교회 회장)
11/7	요한계시록 바로 알자!	서우진 목사(영암교회 부목사)

제 18기 영암아기학교 9월 19일~10월 31일(목, 6주)

교단 104회 총회 9월 23일(월)~26일(목) 포항 기쁨의 교회

세례 · 입교식 9월 29일(주) 3부 예배시

- <세례> 김기순 김봉식 서정인 유일균 전성하 한옥희 함숙달
- <입교> 조승환 남궁승준 양승준 이건희 이준섭

성찬식 10월 6일(주) 1~3부, 젊은이, 고등부 예배 시

가을학기 교사수련회 9월 28일(토) 딱따구리 연수원

제 12기 영암부모교육 9월 29일, 10월 27일, 11월 24일(주, 3주)

- 강사: 강정원교수(한국성서대학교 영유아보육학과 교수)
이유남권사(‘엄마 반성문’ 저자)
이상영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상담학 교수)

모든세대가 함께하는 One-Point 통합교육 10월 6일~27일(4주)

추수감사주일 10월 13일(주)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 2~3부 예배 시

추수감사절 찬양한마당 찬양예배 시

소식 임옥목사 20주기 기념예식 및 학술세미나 10월 20일(주) 오후 3시

- 설교: 림인식목사(노량진교회 원로)
- 발표: 장흥길박사(장신대 신약학), 안교성박사(장신대 역사신학)

가을특별새벽기도회 10월 21일(월)~26일(토) *주 안에서 행하라(골 26-7)

21일(월)	22일(화)	23일(수)	24일(목)	25일(금)	26일(토)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 안에서 행하되	주 안에 뿌리를 박으며	주 안에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서울북노회 제73회 정기노회 10월 29일(화) 번동평화교회

교회창립65주년기념주일 · 전교인출석주일 11월 10일(주)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회 11월 14일(목)

청년공동체 천하제일요리대회 11월 17일(주) 식당

향존직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및 투표 11월 17일, 24일(주)

- 장로 피택자: 이병락, 김대영, 김홍석, 채영수, 문한영
- 안수집사 피택자: 이현철, 유정곤, 박영, 김균모, 오광준
- 권사 피택자: 김성은, 안영희, 이현주, 윤정연, 조순임, 최지원,
김영선, 정홍란, 권인숙, 임미선

2019 사경회 11월 20일(수)~22일(금), 한가채목사(중앙성결교회)

일자	시간	말씀	제목
20일(수)	저녁	삼상 17:45~49	골리앗의 시대에서 다윗의 시대로
21일(목)	새벽	눅 5:1~11	실패에서 고백으로
	저녁	막 9:21~29	절망에서 소망으로
22일(금)	새벽	마 25:14~30	소유에서 소통으로
	저녁	삼상 7:3~14	이가봇에서 에벤에셀로

성탄점등식 11월 27일(수)

보문역 성탄목 점등식 12월 3일(화) 보문역

성북구교회연합회 성탄목점등식 12월 3일(화) 성북구청 앞

유치부 겨울성경학교 12월 6일(토)~7일(주) 용인 에버랜드 그린캐빈

이웃초청 송년음악회 12월 8일(주) 오후예배 시, 예인교수양상을 공연

2019 대림절 밀알헌금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12월 1~15일(3주간)

1) 사랑의 연탄 2) 자립화대상교회 쌀 지원 3) 군인교회 복음캘린더 보내기 4) 안암/보문동 이웃 난방용품 지원 5) 미전도 종족 성경보급(대한성서교회)

일대일양육 수료식 12월 15일(주) 찬양예배 시

교역자사임 권세진목사, 안치현목사, 김상규전도사, 이재영전도사, 표경림전도사

교역자부임 최석빈목사(청년공동체, 교육부), 이승현전도사(초등2부), 김승철전도사(초등1부), 안지애전도사(중등부), 최정아전도사(유치부)



136-073 서울 성북구 안암로 7길 66 영암교회

TEL. 924-6798 FAX. 927-9009

Young-Ahm Presbyterian Church

66, Anam-ro 7-gil, Seongbuk-gu, Seoul, KOREA

<http://www.youngahm.or.kr>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암교회

